전법 일기

AI로 담은 법음
상담 등 전법에 활용

요즘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 사례를 자주 듣는다. 특히 작년부터는 AI 작곡 프로그램을 통해 찬불가를 만드는 불자들이 부쩍 늘었다. 나도 〈반야심경〉과 〈자애경〉을 현대적 감성으로 풀어낸 찬불가를 만들어 보았는데, "마음에 와닿는다", "계속 듣고 싶다"는 반응을 들으며 1시간 버전으로도 제작하게 되었다.

법을 전하는 방식은 시대와 인연에 따라 참으로 다양하다. 말과 글, 몸짓, 그림, 음악, 건축 등 여러 방편으로 법은 펼쳐질 수 있다. 어느 날 '긍정의 에너지를 담은 노래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작사는 내가 맡고, 작곡은 'SUNO AI'의 도움을 받아 12곡을 완성하는 것을 올해 목표로 삼았다. 지금은 '상글방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노래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통영에서는 매년 어린이날이면 통영 룸비니회 주최로 초등학생 백일장이 열린다. 올해 백일장에 참여한 한 어린이 법우의 동시에서 '상글방글'이라는 단어를 처음 보게 되었다. 사전을 찾아보니 "눈과 입을 귀엽게 움직이며 소리 없이 정답고 환하게 웃는 모양"을 뜻하는 우리말이었다. 그 따뜻한 느낌이 마음에 남아 프로젝트 이름으로 삼게 되었다. 지금까지 '나는 나를 사랑해', '그냥 이대로'라는 노래를 온라인 법당 '친절'에 공개했다.

얼마 전에는 상담을 요청받는 일이 있었다. 마음공부를 통해 삶이 달라졌다는 신도의 이야기를 듣고, 지인이 자신도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며 상담을 청한 것이다. 마주 앉은 그녀는 40대 어머니였고, 두 시간 넘게 자신이 살아온 삶을 쉼 없이 털어놓기 시작했다. 늘 남을 먼저 챙기며 착하게만 살아왔던 그녀는 이제는 자신을 좀 더 돌보며 새로운 모습의 아내, 딸, 엄마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가장 많이 한 말은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였다. 답은 이미 그녀 안에 있었지만, 복잡하게 얽힌 생각 속에서 스스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질문을 통해 생각의 실타래에서 빠져나오자 그녀는 자신의 진짜 바람이 무엇인지 찾기 시작했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스스로 답을 찾게 되었다. 얼굴빛이 한층 밝아진 그녀에게 어깨와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게 살라는 응원과 함께, 내가 만든 긍정의 노래도 들어보라고 권하며 상담을 마쳤다.

그날 오후, 그녀는 "나 자신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다. 처음으로 남편에게 자신의 바람을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남편은 흔쾌히 수락했다고 한다. 오랜 고민이 한순간에 해결되어 본인도 놀란 눈치였다. 참나를 찾아가는 마음공부의 중요성을 깨달은 그녀는 앞으로 스님과 마음공부 스터디를 함께하자고 제안해왔다.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온전히 공감해 주는 일이라 여겨진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마음을 듣는 일이야말로 언제나 소중한 전법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한산 스님
온라인법당 '친절' 운영



김형중의 깨달음의 노래 ⑯ 나옹 혜근 선사의 오도송

"미혹도 깨침도 모두 떨쳐 버려라"

미혹하면 눈에 보이는 산하대지가 고통의 대상이 되고(迷即山河爲所境)
깨치고 보면 온 세계가 그대로 내 몸이네(悟即塵塵是我身)
미혹도 깨침도 함께 떨쳐 버리니(迷悟兩頭俱打了)
닭이 새벽 오경에 계명성(鷄鳴聲)을 울리네(朝朝鷄向五更啼)

나옹 혜근(懶翁 惠勤, 1320~1376) 선사는 고려 말에 태고 보우(太古 普愚) 선사와 쌍벽을 이루는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최고의 선승이다. 중국 원나라에서 10년을 유학하여 중국 전통 선종인 임제종 제18대 평산 처림(平山 處林) 조사의 법맥을 받아 왔다.

공민왕과 우왕의 왕사로서 쇠망해 가던 나라에서 고통 속에 헤매는 서민 대중을 위한 전법 교화에 전력했다. 그의 법석은 희망의 등불이 되어 인산인해를 이루고, '부처의 후신'으로 추앙받았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나옹 선사가 오도송에서 밝혔듯이 눈으로 보는 대상에 현혹되지 않으면 된다.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고 사물을 보고, 미인을 보고 헛된 욕심을 일으킨다. 그래서 "미혹하면 눈에 보이는 산하대지가 고통의 대상이 되고"라고 읊었다.

12처설에서 눈에 보이는 대상인 6경(六境, 색성향미촉법)을 번뇌를 일으키는 도적이라 하여 6적(六賊)이라 한다. 오온(五蘊)이 공한 것임을 알아야 고통에서 건너간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또 하나의 길은 내 마음으로 잘 생각하고 보면 된다. 고통스런 것은 생각을 하지 말던지, 생각을 전환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보면 된다. 나옹 선사는 "깨치고 보면 온 세계가 그대로 내 몸이네"라고 노래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부처의 마음과 덕상(德相)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 어리석어 보지 못한다"고 했다. 깨닫고 보면 중생이 부처이고, 고통스런 이 세상이 부처가 사는 땅이다. 연꽃이 높은 고원(高原)에서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 더러운 연못에서 아름다운 꽃을 핀다.

물질에 대한 욕망이 고통을 일으키는 마왕이다. 집착을 놓아 버리면 고통의 딱지가 떨어져 나간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뗏목의 비유'를 통해서 강을 건너왔으면 과감히 뗏목을 버리고 길을 떠나라고 가르쳤다. 깨침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였다. 내가 잘났다고 하는 아상(我相), 내 생각만이 옳다는 아집과 독선이 중생의 고질병이다.

나옹 선사는 "미혹도 깨침도 함께 떨쳐 버리니 새벽 오경에 닭이 계명성(鷄鳴聲)을 울리네"라고 결구하였다. 계명성은 어두운 중생의 마음을 깨우는 오도의 외침이다. 이 오도송은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한 편의 멋진 설법시이다.

나옹 선사가 불교 교리를 대중이 알기 쉽게 가사체로 노래한 '서왕가(西往歌, 서방정토 왕생가)'는 우리나라 가사(歌辭) 문학의 효시라고 평가를 받는다. 〈나옹선사어록〉에는 주옥같은 깨달음을 노래한 선시가 있다. 한국문학사에서 금자탑을 쌓은 불후의 시승이다.

예전부터 나옹 선사의 시라고 구전되고 있는 '청산은 나를 보고'는 지금 수많은 가수들이 작곡하여 열창하고 있는 가사이다. 순수 자연 속을 소요하는 구도자의 해탈 무애(無碍)한 삶을 노래한 시상과 리듬의 품격을 갖춘 절창이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靑山兮要我以無語)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蒼空兮要我以無垢)
사랑도 벗어 놓고 미움도 벗어 놓고(聊無愛而無憎兮)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如水如風而終我)

〈문화평론가〉

기자칼럼

'간판 사건'에 드러난 우리 사회 '종교 감수성'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한 달 전, 아는 스님에게서 사진 한 장과 메시지를 받았다. 사진 속에는 승복을 입고 염주를 든 채 혀를 내민 소 캐릭터가 큼직하게 그려져 있었다. '00 숯불갈비'라는 식당 이름과 함께. 순간, 이것은 디자인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에 대한 존중의 문제임을 직감했다.

곧바로 해당 간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썼다. 살생을 금하는 불교 교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 마케팅 방식에 대해 "상식 밖"이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업체 측은 간판을 교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행히 조속한 대응으로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이번 일을 통해 우리 사회의 낮은 종교 감수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씁쓸함을 남겼다.

'성인지 감수성'이 성별 간 차별과 고정관념을 인식하고 조심하는 태도라면, 종교 감수성은 다원 사회에서 종교 간 평화와 공존을 가능케 하는 최소한의 예의다. 종교의 상징이 거리의 간판에서 웃음거리로 전락할 때, 이는 단순한 희화화를 넘어 시민사회의 품격을 해치는 문제가 된다.

정분남 부산여성불자회 회장은 이번 일을 두고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감수성을 지키는 것은 행정기관과 시민, 불자 모두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는 특정 종교에 국한된 요구가 아니라, 모든 신앙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는 윤리적 요청이다.

불교뿐 아니라 그 어떤 종교적 상징도 상업적 도구나 조롱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종교를 '타인의 신념'이 아닌 '내가 자유롭게 소비해도 되는 기호'로 여기는 셈이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믿음과 가치를 조롱하거나 훼손하는 방식으로 표현될 때, 우리는 그 한계에 대해 스스로 물어야 한다.

이번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우리는 타인의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이 담고 있는 정신과 상징을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종교 감수성은 종교인의 '예민함'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기본 조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